

‘나주방문의해’ 선포... 500만 관광도시 실현 눈앞으로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을 ‘나주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숙박과 관광,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속도도를 높일 전망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관광객들이 당일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숙박 인센티브와 관광 콘텐츠, 연중 축제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계한 방문의 해 핵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며 선포식에서는 방문의 해 비전 발표를 비롯해 홍보대사 위촉, 관광 관련 기관과의 나주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는 나주 영산포 출신의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나주 반남면 출신으로 드라마 자이언트와 지붕뚫고 하이킥 등으로 큰 사랑을 받는 국민배우 정보석,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이자 흑백요리사 시진 1에 출연했던 안유성 셰프가 위촉돼 나주 관광 홍보에 힘을 보탠다.

숙박 인센티브 ‘나주 1박 2득’으로 머무는 관광 본격화

숙박, 축제, 콘텐츠 연계 전략으로 관광 소비 구조 전환

2월 26일 서울 코엑스서 선포식... 전국 단위 관광 붐업 시도

대표 체류형 관광 사업으로는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나주 1박 2득’을 운영하며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외 개별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여행의 만족과 실질적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취지다.

인센티브는 동행 인원에 따라 2~3인은 5만 원, 4~5인은 10만 원, 6인 이상은 13만 원을 지급하며 아동 동반 시 2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사전 점검을 거쳐 2026년 3월 1일 이후 숙박한 여행분부터 인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며 세부 기준은 2월 중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 방식은 현장 지급과 온라인 지급으로 이원화시켜 현장 지급은 나주사랑상품권 지류형으로 제공해 여행 중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즉시 이어지도록 유도했으며 온라인 지급은 ‘나주몰’ 사용 포인트로 지급해 방문 이후에도 나주 농특산물 소비가 이어지도록 구성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특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 동반 추가 지원과 연계한 가족 관광 활성화에도 나서며 한 달간 아동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관광 특화공간을 조성해 체험형 콘텐츠와 포토존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연중 축제와 행사는 체류를 지속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며 2월 설맞이 연날리기축제를 시작으로 3월에는 ‘나현’ 작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 천년



나주목욕심문화축제, 5월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6월 뮤지컬 갈라콘서트 ‘영웅’, 8월 빛가람 하이볼 페스티벌을 이어간다.

10월에는 나주의 대표 종합축제로 자리매김한 ‘2026 나주영산강축제’를 중심으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전국나무마라톤대회를 연계해 축제와 미식, 스포츠 수요를 함께 끌어올리고 11월 빛가람 빛원인 페스티벌을 통한 야간 체류 콘텐츠 확장으로 계절별 관광 수요를 촘촘히 연결한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치안유지 기여로 감사장 받아 장흥경찰서장, 관제센터 직원에 감사장 수여

장흥군은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 요원이 관·경 협력을 통한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장흥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 A관제 요원은 지난 2025년 11월 학교폭력 및 뺑소니 사건 관련 장흥경찰서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이동 동선 확인 및 영상정보 제공을 통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밖의 사건·사고 수사 협조 요청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자료 제공으로 사건 해결에 협력했다.

김경호 장흥경찰서장은 20일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사건 해결에 기여한 A관제요원에게 감

사장을 수여하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장흥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교통사고·절도·폭력·실종 등 총 262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했다.

장흥 관내에 지능형 CCTV 935대를 설치하여 쓰러짐, 폭력, 배회 등 다양한 이벤트 감지 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처에도 앞장섰다.

장흥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 방범용 CCTV 1,431대를 관제요원 16명이 4초 3교대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근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능형 관제를 통한 신속한 범죄 대응으로 안전한 장흥군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영광군은 마을 유희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해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2026년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소 구축 사업’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

영광군,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참여 마을 모집 시설비 50% 군 지원, 영광형 햇빛소득마을로 자리매김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발생한 발전 수익은 마을 복지, 환경개선 등 공동체 복리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6년에는 19~70kW급 발전소 10~30개소를 신규 구축할 예정이며, 설계·설치·모니터링 비용 등 시설비의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자부담 50%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50kW 기준 발전소의 예상 연간 순수익은 초기 15년간 약 300만 원, 이후 69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익금 전액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관리된다.

참여 대상은 영광군 전 읍·면(낙월면

제외) 마을로 △주민 20명 이상 동의 △계통연계 가능 △부지 확보 △자부담 마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1차(1.21.~2.27.), 2차(3.1.~8.30.) 두 차례 접수하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에너지산업실 신재생산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을은 자격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체평가와 보조 사업자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심의 후 개별 통보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보조금, 용자 지원사업 신청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서 5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용자 지원사업은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연 1.5% ~ 2%의 저금리로 농업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에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지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담양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담양군 내에 1년 이상(2026.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이하(1946. 1. 1.~2006. 12. 31. 출생자)의 여성농업인이다.

단,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전업 직업을

가진 자, 그리고 2024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비 지원금인 20만 원은 본인 명의의 NH농협체크카드(체크 또는 신용)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군비로 추가 지원되는 10

만 원은 담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7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담양군은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지급 및 사용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급된 포인트는 올해 12월 말까지 문화, 예술, 보건 등 관련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암군, 영암읍 등 상수도 현대화로 연 28억 예산 절감

50%대 유수율 86%로 끌어올려 연간 132만톤 절약, 주민 불편도 해소

영암군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마친 영암·삼호읍 일대의 상수도 유수율 86% 이상을 달성하며 연간 28억원 상당의 수도물을 아꼈다.

유수율은 생산·공급된 수도물이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비율로, 정수장에서 나간 수도물이 가정 등 사용처에 몇 퍼센트 도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

영암군은 2021년 사업 초기 50%였던 유수율을 36.0%p 끌어올려 목표치인 85%를 초과 달성하고, 연간 132만톤의 수도물을 아껴 2023년 상수도 생산원가 2,130원/1t 기준 28억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영암·삼호읍 일대는 상수관로 노후화로 잦은 누수가 발생해 유수율이 낮고, 갑작스러운 급수 중단으로 주민 민원도 많았다.

영암군은 유수율 저하, 주민 불편 해소 등 고질적 상수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국비 194억원을 확보해 2023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노후관 정비에 들어갔다.

3년 동안 영암읍 영암터미널에서 군청 등 18.5km 구간, 삼호읍 세한대에서 대불 주거단지 등 17.2km 구간으로 구성된 연장 35.7km의 상수관로를 교체하고 기존 관 폐쇄, 상수관망과 스마트 관망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 유수율 85% 보증기간에 들어가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내다보고 있는 영암군은, 올해 9월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유지관리에 들어가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시행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거두는 방향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꾸준한 깨끗한 수도물 공급으로 영암군민의 물 복지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원더사람을 만나도 기적이 많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념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
 풍만한...
 고유의 색을 가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된다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